

EPHESIANS

1



올바른 믿음 FAITH

에베소서

올바른 행위 LIFE



1 권

주제	에베소서 장 절	페이지
서언		6
그룹토론을 위한 서론 : 그리스도 안의 삶		7
이 과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2
1A 에베소서와 저자	1:1	14
1B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냄	1:1	24
1C 하나님의 관점		34
2A 모든 영적인 복	1:3	40
2B 세 가지 특별한 복	1:4-14	51
2C 용서		61
3A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짐 (우리의 과거)	2:1-5	66
3B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우리의 현재)	2:6-10	78
3C 우리의 간증		89
4A 하나님의 비밀 - 적대감에서 하나됨으로	2:11-3:13	89
4B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1:15-23; 3:14-21	104
4C 예수님의 기도 : 교회의 영광	(요 17장)	112
5A 그리스도의 몸 (1) - 성숙을 통한 성장	4:1-6, 13-16	118
5B 그리스도의 몸 (2) - 섬김을 통한 성장	4:7-12	128
5C 나의 은사 평가하기		139

2권

주제	에베소서 장 절
6A 그리스도의 몸 (3) - 변화를 통한 성장	4:17-32
6B 사랑과 빛 안에서 걸어가기 배우기	5:1-14
6C 분노	
7A 당신의 자산들을 사용하십시오	5:15-18
7B 결혼 - 하나님의 계획과 모범	5:21-23
7C 성령으로 충만하라	5:15-21
8A 가정 -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들	6:1-4
8B 일 - 하나님의 관점	6:5-9
8C 권세에 대한 성경적 개념	
9A 영적 전쟁 (1) - 적	6:11-12
9B 영적 전쟁 (2) - 승리자	1:21, 6:10
9C 왜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까요?	(눅 22:31,32)
10A 영적 전쟁 (3) - 우리의 역할 (갑옷)	6:13-17
10B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6:18-24
10C 하나님을 찬양하라	

최종 시험을 위한 복습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6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 안에 바울의 가르침이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신의 내용은 깊고 충실하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서신은 아닙니다.

이 개인 학습(self study)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를 깊이 맛볼 수 있도록 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이 교재는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를 통합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교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각 장은 적합한 분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해를 위해 신약의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들의 몇 곳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의 영적 통찰력을 통하여 에베소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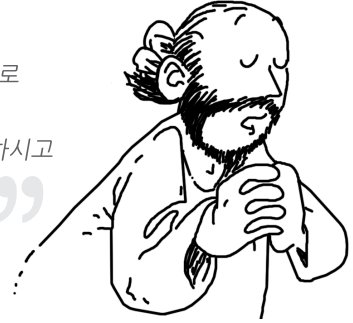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본 과정은 바울의 주요 가르침,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점점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

“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 1:9),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라게 하시고
 (골 1:10).

”



1. 이 과정에서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가 공부할 에베소서의 완전한 개요(outline)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2. 이 과정은 그리스도 안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13-17을 읽으십시오.
 - a)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 b)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 c) 예수께서는 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 d) 이 내용과 이 과의 처음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와 어떻게 연결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어느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관점입니까?

3.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매우 궁금해하였습니다. 그 메시야? 선지자? 좋은 사람이지만 오해를 받은 사람? 더러는 사기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a)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 b) 예수께서 세례(혹은 침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3:17, 17:5)

4.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펴서 30-33절과 36을 읽으십시오.
 - a)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33절 하)
 - b)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5.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20:31을 읽어봅시다. 요한은 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6.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
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
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통찰력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 계시한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20-22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지위가십니까?

7.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묘사는 우리가 복음
서에서 읽을 수 있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나 치욕스런 십자가 위
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의 예수님과 에베소서의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
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20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8.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
님의 뜻과 관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치 없는 존재? 보잘
것없는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죄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
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여주는 4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3, 2:6, 2:10, 3:12.

각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결과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9. 어쩌면 우리들은 자신을 이처럼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의 충만한 지식과 더불어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골 1:10)

10.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음의 두 예를 살펴보십시오.

A. 10대 여자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대답합니다. “제가 9살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너희 반의 여자아이 절반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지옥에 갈 바에는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나쁜 일을 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B. 한 그리스도인 청소년이 친구들이 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 너는 너만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친구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 나는 착해!”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a) 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매우 좋은 (또는 나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 b)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자신의 '올바른 행위'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